

**“그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스리랑카·태국·인니·말레이 등 아시아 폭우로 인명피해 속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폭우와 폭풍우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는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폭우와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아동 6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주택 약 1천700채가 파손됐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수와 산사태 피해 위험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구호 활동을 위해 2천700명이 넘는 군인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인도 기상청은 사이클론이 스리랑카를 통과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를 향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오전께 최대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타밀나두주와 푸두체리시를 강타할 것으로 예고했다. 우기가 한창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전날 북수마트라주 메단시 한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 나무와 진흙 바위가 관광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북수마트라주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인해 총 2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나라티왓·알라·빠따니·송클라 등 태국 남부 7개 주에 최근 이어진 폭우로 1천800여 마을 13만6천여 가구가 침수됐다고 재난 당국은 밝혔다. 남부 지역 주요 도로가 폐쇄됐으며,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휴교령이 내려졌다.

나라티왓주에는 26일 502mm의 비가 내리는 등 지난 7일간 강수량 1천100mm를 기록했다. 나라티왓주에서 학생 1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고 빠따니주에서도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나오고 있다. 켈란탄·케다테렝가누 등 태국과 인접한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에서도 홍수로 6만여 명이 피해를 봤다(출처: 연합뉴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시편 18:2,16)**

하나님,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우와 폭풍우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나라들을 돌봐주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바람과 비를 다스려 주시고 많은 물에서 실종자들을 속히 구출해 주십시오. 복음화율이 낮은 이 지역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사 지금 이때 영혼이 피할 곳이 반석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를 구하며 찾는 자에게 구원의 손을 펴사 가장 안전한 여호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ISIS, 모잠비크 기독교인 4명 살해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 지역에서 기독교인 4명이 최근 이슬람 테러 조직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에 붙잡혀 살해당했다고 CBN뉴스가 27일 전했다. 이번 살해 사건 중 두 명은 11월 3일 ISIS에 의해 붙잡혀 참수됐고, 다른 한 명은 11월 7일 기관총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11월 9일에 살해됐다고 비영리 단체 바나바스에이드가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2022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카보델가도 주에서는 2017년부터 폭력 사태가 시작돼 2023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피난을 떠났고 2,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 2019년에는 ISIS 모잠비크가 공식적으로 ISIS에 충성을 맹세했다. 바나바스 에이드는 웹사이트를 통해 “슬픔에 잠긴 이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북부 모잠비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반란이 종식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시편 13:3-5)**

하나님,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의 끊이지 않는 폭력사태에 이어 아이시스 조직에 의해 기독교인이 살해된 소식 앞에 애 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가족들과 성도들의 눈을 밝히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지하여 시련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승리를 이 땅에 나타내사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의 어리석고 악한 행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물러가게 하소서. 모잠비크에 주님만이 소망 되시오니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 ▲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간 일시 휴전안 타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일시 휴전안이 26일(현지시간) 전격 타결돼, 오는 27일 오전 4시부터 60일간 양측의 공습과 교전이 중단된다고 연합뉴스가 AFP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이다. 이날 저녁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휴전 방침을 설명했다.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는 60일간 일시 휴전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데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편 46:9-10)**

하나님, 13개월 동안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과 무장 정파들의 전쟁에 간섭하여 주사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세력들을 꺾어 주시고 힘을 잃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주의 몸 된 교회가 거룩한 손 들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사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소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공동대통령제 도입 추진...“오르테가 부부, 권력독점”



올해 한국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북한에 대사를 임명한 중미 니카라과가 ‘공동 대통령’ 체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린다. 이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 부부의 ‘권력욕’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니카라과 국회는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에서 보낸 헌법 개정안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개정될 헌법은 모든 니카라과 국민이 혁명 과정에서 발전시킨 것을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재적의원 90명 중 76명이 여당 소속 또는 친(親)여 계열인 니카라과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법안을 지금까지 ‘신속 처리’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개헌안 역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매체 라프렌사와 엘19디히탈 등 보도를 보면 개헌을 통해 니카라과에는 ‘공동 대통령’(Co-presidente y Co-presidenta) 체제가 들어선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헌법에 ‘공동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명문화하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와 함께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는 1년 더 늘어난 6년으로 변경된다. 대통령 권한 자체도 대폭 늘려, 입법·사법부 및 선거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헌안에 명시했다.

니카라과 정부 비판 매체인 라프렌사는 “이는 대통령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정부 기관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오르테가 대통령 부부의 권력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르테가 정부는 여기에 더해 소속 정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깃발을 ‘애국적 상징’으로서 국기와 동등한 개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헌법에 넣었다고 친정부 성향의 뉴스 엘19디히탈(El19Digital)이 전했다. 흰색과 하늘색을 위주로 구성된 국기 대신 여당기를 ‘국기’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라프렌사는 ‘오르테가 독재 정권으로 가는 북한식 개인숭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2018년부터 오르테가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반발과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니(하박국 2:4-5)**

하나님, 공동 대통령 체제를 도입하며 여당기를 국기와 동등하게 인정해 현 정권의 세력을 강화하여 자기 욕심을 넓히려는 니카라과 위정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가 더 높은 빈곤율로 이어져 국민들의 고통이 더하고 있는 이때 온 무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천지를 지으신 주께 나아와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교회를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등경 위에 두신 빛과 같이 그리스도만 드러나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중국, 미얀마 군사정권에 2,000억 원 규모 자금지원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2,000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정의 인구조사, 인프라 프로젝트, 감시 시스템 등 20개 사업 지원용으로 10억 위안(한화 1,936억 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얀마 군정 수장인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달 초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 중국을 찾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만나면서 자금지원이 확정됐다. 내년 총선을 실시할 계획인 군정은 지원 자금 중 약 15%는 인구조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은 외곽 지역 주요 도시와 기지 등을 반군에 내준 군정의 보복으로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전날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군정이 반군에 점령당한 마을 공격을 강화하며, 참수, 집단 성폭행, 고문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어 미얀마에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부에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정부가 있어 미얀마 국민에 대한 잔학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에스겔 34:12,15)**

하나님, 군부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의 질타가 계속되는 중에도 군수물자에 이어 대규모 자금까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미얀마를 돌보소서. 탐심과 이기심으로 뒤흔어진 군부와 중국을 꾸짖어 주시고 주께서 간섭하사 속히 이 땅의 분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마치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양과 같이 되어버린 백성들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친히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통해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 ▲ 콩고민주공화국 분쟁과 가격 급등으로 3,560만 명 식량 불안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민공)에서 무장 폭력과 분쟁,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해 2,56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 유엔 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콩민공은 식량 자급자족 잠재력이 있지만, 분쟁, 기후 변화, 전염병, 농촌 개발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콩민공의 전반적인 식량 불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 이투리, 북키부, 남키부 지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분쟁과 난민 문제로 인해 2024년 중반에 540만 명이었던 위기 또는 긴급 수준의 기아 인구는 6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콩민공 동부에서는 분쟁과 자원 투쟁으로 인해 65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농업과 인프라 발전이 크게 방해받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은 "2025년에는 콩민공의 식량 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하여 가족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 4:7-8)**

하나님,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 자급자족의 잠재력이 있지만 지속적인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콩민공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기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 난민과 주민들을 돌봐주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몸 된 교회를 통해 일깨우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옵소서. 궁핍한 가운데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십자가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기적을 콩민공에 나타내소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젊은 여성들 기독교와 멀어지고 무신론 증가



핀란드에서 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가 최근 전했다. 지난 10월말 발표된 교회연구소의 ‘불확실성의 시대의 교회: 핀란드 복음루터교회 2020-2024’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여성 중 단 11%만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으며, 또한 예수의 속죄를 위한 죽음을 믿는다고 답한 비율도 11%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세대의 여성일수록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이는 세대 간 변화를 극명히 보여준다. 과거 세대에 비해 현재 젊은 여성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이나 헌신이 더 낮았다. 반면, 30세 미만 남성 중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비율은 18%였으며, 예수의 속죄적 죽음을 믿는 비율은 27%였다. 남성의 경우, 세대 간 종교성의 변화는 여성만큼 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30세 미만 남성 그룹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종교성이 어느 정도 강화되는 양상이 보였지만, 대규모적인 변화는 아니다. 여전히 젊은 남성 대다수는 자유주의적이지만, 소규모 그룹은 기독교를 발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강조된 점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무신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연구소 소장 한나 살로매키(Hanna Salomäki)는 “젊은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자신을 무신론자로 여겼으나, 이제는 여성 비율이 이를 앞질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핀란드인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조사 결과, 핀란드인의 57%가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20년 전보다 1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한 비율도 20년 전 36%에서 현재 19%로 감소했다. 기도의 빈도도 감소했으며, 매주 최소 한 번 기도한다고 답한 핀란드인의 비율은 2011년 30%에서 현재 19%로 줄었다.

최근 조사에서 핀란드인의 6%가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2004년에는 7%였다. 반면, 자신을 신앙인으로 인식한 비율은 20년 동안 38%에서 24%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에게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소수자라고 느끼는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높은 소수자 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보수적 종교인 중 22%가 소수자라고 느꼈으며, 종교인(19.2%), 이교도(19.1%), 비종교인(19%), 무신론자(18.7%)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데살로니가전서 5:3,6,8)**

하나님, 잘 갖춰진 사회보장제도로 평안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무관심과 무지함으로 점점 주님을 떠나고 있는 핀란드의 젊은 세대를 일깨워 주옵소서. 인본주의와 세속의 공격 앞에 무력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사탄의 거짓과 속임의 미혹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무신론과 세속주의에도 진리를 파수하는 소수의 교회를 통해 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며 복음과 기도로 무장하여 잡자는 자들을 깨우는 구원의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인도 마니푸르주, 기독교·힌두교 갈등 재점화로 20명 사망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 주에서 기독교인과 힌두교도 간의 종교적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지난 2주 동안 20명이 사망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전했다. 최근 아삼 국경 근처의 지리밤에서는 강에서 발견된 젊은 쿠키족 여성 살해 사건으로 시작된 보복성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다수 힌두교도 메이테이족과 소수 기독교도 쿠키족 간의 폭력이 급증했다. 기독교 교사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이 여성이 메이테이족의 공격으로 살해되고 불에 타면서 긴장은 극적으로 고조됐고, 무장 쿠키족과 보안군 간의 치명적인 대치로 이어져 쿠키족 10명이 사망했다. 지난 16일에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메이테이족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지리밤의 쿠키족 주택과 교회 6곳에 불을 질렀고, 주 주도 임팔에서는 폭도들이 정부 관리들의 거주지를 불태웠다. 당국은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인터넷 접속을 중단했으며 학교를 폐쇄했다.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썩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스가랴 12:8,10)**

하나님, 기독교인과 힌두교도 간의 오랜 종교적 갈등이 다시 고조되어 보복성 살인이 연이어 발생해 더욱 악화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인도를 다스려 주십시오. 힌두극단주의자들과 개종금지법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사 칼을 칼로 대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은 자들을 향해 용납과 사랑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쿠키족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며 통곡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 ▲ 태국, 불교 수도원서 시신 40여 구 발견…‘시신 사용 명상 기법’ 주장

태국 북부 불교 수도원에서 시신 40여 구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AFP통신 등을 인용해 25일 전했다. 태국 경찰은 지난 23일 북부 피짖주 파 나콘 차이보본 수도원에서 시신 41구가 발견돼 출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원 측은 시신을 명상 수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수도원장은 “시신 사용은 내가 개발한 ‘명상 기법’의 일부”라며 “수도자들이 시신이 든 관이 있는 공간에서 명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진단서와 시신기증서가 있지만 시신이 실제로 기증된 것인지, 자연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근 깜팡렛주 한 수도원에서도 시신 12구가 발견됐다. 수도원장은 역시 시신은 명상 수행을 위해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부 수행자는 시신을 이용한 명상 수업에 참석한 후 초자연적 청각·시각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러한 명상 방식이 얼마나 퍼져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예레미야 10:14)**

하나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의 생각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얻고자 죽은 시신까지 이용하는 태국 불교도들의 참담한 상황을 보옵소서. 오랜 시간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거짓 우상과 바꾸어 탐심을 쫓는 이 땅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사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모든 심령 위에 예수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